



국무1차장, 세계백신면역연합(GAVI) 이사회 의장 면담

- 한·GAVI 파트너십 강화 및 한국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 논의 -

□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6월 4일(목) 서울에서 헬렌 클라크(Helen Clark) GAVI 이사회 의장과 만나 GAVI와의 보건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세계백신면역연합(GAVI) : 2000년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협력 보건 기구로 개도국 보건 증진을 위한 백신 보급과 예방접종 확대 등 추진

□ 이 자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은 “정부는 글로벌 보건 형평성 개선과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5월 마련한 「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 전략」에 따라 국제보건기구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”이라고 말하면서,

○ 개발도상국의 아동 예방접종 확대와 백신 보급에 기여해 온 GAVI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여를 통해 글로벌 보건 격차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또한, 한국의 보건·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백신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국제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-GAV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.

* GAVI는 연간 1.4억불 이상의 한국 백신 구매 → GAVI 조달의 약 11%, 전체 4위

□ 이에 헬렌 클라크 이사회 의장은 그간 한국 정부의 GAVI에 대한 재원 기여* 등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“한국 기업들이 GAVI를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글로벌 보건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”고 말하면서


○ 보건 의료 형평성 개선을 위한 백신 개발·보급 확대, AI 기술을 활용한 보건·바이오 분야 혁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.

* 한국은 '10~'25년간 총 4.26억불 기여, '26~'30년간 총 5,000만불 기여 공약('25.6월)

□ 끝으로, 김 국무1차장은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*을 소개하면서 GAVI 등 국제보건기구의 참석을 통해 보건·바이오 분야의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.

* '22년부터 정부가 WHO와 공동으로 개최중인 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 논의체

< 헬렌 클라크 이사회 의장 약력 >

사진	성명	직위	주요 경력
	헬렌 클라크 (Helen Clark)	GAVI 이사회 의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뉴질랜드 국회의원('81~'09) - 뉴질랜드 총리('99~'08) - UNDP 총재('09~'17) - GAVI 이사회 의장('26.1~'현재)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전략과	책임자	과 장 이윤정 (044-200-2157)
		담당자	사무관 송동훈 (044-200-2158)